

아동의 기질과 또래 상호작용 간의 관계 : 모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신 은 경¹⁾

정 아 현²⁾

김 소 아³⁾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육아정책연구소

본 연구는 아동의 기질과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기질과 또래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만 3세 아동 1,703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t검증, Pearson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과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 사회성과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또래 상호작용 중 놀이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과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놀이방해에 영향을 미쳤으며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모두는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놀이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정서성과 또래 상호작용(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 간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활동성과 또래 상호작용(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과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아동의 사회성과 또래 상호작용(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간의 관계에서도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기질과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논의하고 아동의 건전한 또래 상호작용 발달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주요어 : 기질, 또래 상호작용, 모의 양육스트레스

1) 교신저자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E-mail : lucy3359@naver.com)

2)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3)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취업모 증가에 따른 가족 형태의 변화와 조기교육의 추세로 많은 아동들이 이른 시기에 보육기관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아동의 생활에 또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또래 상호작용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특히 아동기의 또래 상호작용은 이후 사회성 발달에 토대가 되고(Hartup, 2005), 학령기의 학업 성취 및 학교 적응 등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Hencrisson & Rydell, 2006). 아동이 또래 집단으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안정감을 얻게 되며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통해 정상적이고 적응적인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송명자, 1995).

그러나 모든 아동이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다수의 아동들이 따돌림이나 또래 거부 등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신유림, 2011; Shetgiri, Lin, & Flores, 2013). 이 시기의 또래 상호작용은 아동의 자아 형성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회적 발달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것은 현재 아동의 또래 관계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아동의 사회성 발달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현정, 2014). 또래 상호작용은 주로 유아가 놀이하는 장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유아의 놀이 행동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와 Sutton-Smith(1998: 김희태, 김정림, 이임순, 남연정, 2014에서 재인용)는 유아들의 놀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행동 특성을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아동의 개인적 측면 중 기질은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는 일관되고 안정적인 개인적 특성으로, 아동의 행동과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의 근원으로 여겨진다(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2009). 특히 기질에 따라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동의 기질이 환경에 대한 적응과 또래 상호작용의 질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Belsky & Pluess, 2009). 이러한 맥락에서 기질은 환경적 요인 및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었고,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기질의 영향력이 보고되었다(박석규, 이은희, 2011; Walden, Lemerise & Smith, 1999). Rothbart, Ellis와 Posner(2004)는 기질에 따른 개인적인 차이가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정들을 통제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이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부정적 정서성과 문제 행동, 사회 기술의 부족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정, 이예진, 신유림, 2013; Eisenberg et al., 2000).

또한, 새로운 자극에 대해 두려움과 철회를 보이는 아동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과묵한 형태를 보이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이후의 또래 거부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었다(Sanson, Hemphill, & Smart, 2004). 즉, 부정적 정서성의 기질을 가진 아동은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정서를 빈번하게 표현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부적응적 또래 상호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현정, 2014). 부정적 정서성이 환경적 스트레스에 취약한 반면, 긍정적 정서성과 조정 기술은 환경적 스트레스의 보호 요인으로 나타났다(Rothbart & Bates, 2006). 아동을 기질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을 살펴본 연구에서 기질군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아동의 기질이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석규, 이은희, 2011; 정진숙, 최명선, 2013).

한편,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 변인이 있다. 어머니는 아동이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존재이자 상호작용의 대상이며, 또래 상호작용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한다(이주옥, 2009). 그러므로 어머니와 어떠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였느냐에 따라 또래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박정희, 장영애, 2004). 특히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통한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이

수남, 2010). Cappa, Begle, Conger, Dumas와 Conger(2011)의 연구에서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사회·성취·정서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었고, 아동이 충동적이거나 내적 통제를 잘 하지 못하고 또래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행동들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옥, 2009). 이는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아동이 다른 사람과 원만한 상호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장영애(2005)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만 5세 아동들의 사회적 유능성과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에서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남아는 긍정-친사회적행동을 많이 보였고 여아는 불안-위축 행동과 분노-공격적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영, 2008).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행동은 부정적이었으며 이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이끄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희정, 2014). 이와 같이 부모 변인은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 가운데 부정적 부모-자녀 관계를 대표하는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과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녀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미숙과 김미숙(2005)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중 반응성과 생리적 규칙성이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liford, Calkins와 Keane(2007)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기질이 까다롭고 외현화 문제를 많이 나타낼수록 어머니는 높

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아동이 격렬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과잉활동을 할 때 양육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용신, 정영숙, 2000).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의 경우, 부모를 힘들게 하는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어 부모로 하여금 원망, 무기력, 죄책감, 불안, 우울 등 심리·정서적 고통과 분노를 표출하게 하여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류경숙, 2013). 엄세진(2014)은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다른 사람과의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성은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윤정(2014)의 연구에서는 달래기 힘들고 활동성이 높은 아동을 양육자를 지치게 하고 이는 양육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여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의 기질은 정서적 표현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으로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준다(이정숙, 문보경, 2010).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의 기질은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주고 증가된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발달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민동옥, 박혜원, 2012). 손영지와 박성연(2011)의 연구에서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과는 부적상관을 보였고 거부·제제 양육행동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게 되면 부모의 심리적 복지감 및 자녀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를 부정적으로 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김현미, 2006). 이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경우 자녀와의 부정적인 관계를 통해 자녀의 사회성발달과 적응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Bocknek, Brophy-Herb, Fitzgerald, Burns-Jager, & Carolan, 2012), 특히 양육스트레스는 기질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동시에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이끄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기질과 또래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기질과 양육태도 및 또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으나 양육스트레스와 기질, 또래 상호작용을 함께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기질(정서성, 활동성, 사회성)과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또래 상호작용(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기질과 또래 상호작용간의 관계에서 모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1) 아동의 기질(정서성, 활동성, 사회성)과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또래 상호작용(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놀이방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기질(정서성, 활동성, 사회성)과 또래 상호작용(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놀이방해)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를 패널로 구축하고 이들이 만 12세가 될 때까지 양육과 발달, 성장을 장기적으로 조사하고자 한 국가 수준의 패널이다(고광만, 김소아, 2013). 본 연구는 패널 아동이 만 3세가 되는 4차년도(2011년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변인에 응답한 1,703가구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연구도구는 한국 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의 것을 활용하였다. 연구도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질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Buss와 Plomin(1984)의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정서성(Emotionality), 활동성(Activity) 및 사회성(Shyness/Sociability)의 3가지로 분류되며, 총 20문항의 척도로 아동의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정서성은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며(예.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 활동성은 움직이길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로(예.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각각 5문항이다. 사회성은 타인과 잘 어울리며 수줍어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된다(예. 우리 아이는 혼자 놀기보다 다른 아이들과 놀기는 좋아한다).

전체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범위에서 응답하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하위 영역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서성, 활동성 및 사회성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각 .73, .78, .81이었다.

모의 양육스트레스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문항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상생활 장면에서 직면케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디스트레스를 반영하는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 취업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타인 양육 하에 두고 직장생활을 해야하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의 세 가지 요인으로 나뉜다. 이 중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척도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본 척도는 전체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또래 상호작용

또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Fantuzzo et al(1995)의 또래 상호작용 척도(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와 국내적용을 위해 본 도구를 타당화한 최혜영과 신혜영(2008)의 연구를 토대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 및 번역한 또래 상호작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친사회적인 특성과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특성을 의미하는 놀이상호작용의 9 문항,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의미하는 놀이방해의 13문항, 위축되거나 타인에게 무시 또는 거부당하는 특징을 의미하는 놀이단절 8문항의 총 3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뉜다.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는 5점 Likert척도이다. 본 연구는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 정도에 대해 어머니가 응답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놀이상호작용이 .80, 놀이방해가 .77, 놀이단절이 .81이었다.

3. 연구절차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른 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 및 기질과 또래 상호작용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각 변인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고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의 기질과 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의 기질이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 후,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살펴볼 때 있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방법을 이용하였다(그림 1 참조). 매개효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질이 모의 양육스트레스에(경로 a),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경로 b). 마지막으로 매개효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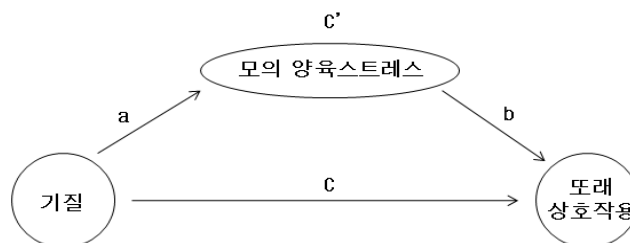


그림 1. 아동의 기질과 또래 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모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질이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고려하기 전보다 감소하거나 없어져야 한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아동의 기질은 정서성, 활동성 및 사회성으로 구분되며 또래 상호작용은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및 놀이방해로 구분된다. 측정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고, 모든 분석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t*검증 실시 결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모의 양육스트레스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기질 중 정서성과 사회성은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활동성은 남아의 평균이 3.90, 여아의 평균이 3.79로 남아의 활동성 점수가 여아의 활동성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4.10, p < .001$).

또래 상호작용의 하위 요인 중 놀이상호작용은 남아의 평균이 3.37, 여아의 평균이 3.53으로 여아의 놀이상호작용 수준이 남아의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6.85, p < .001$). 놀이단절($t = 2.46, p < .05$)과 놀이방해($t = 5.68, p < .001$)는 모두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았다. 이처럼 종속변인인 또래 상호작용에 대해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모든 분석에서 성별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였다.

표 1. 성별에 따른 모의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기질 및 또래 상호작용 ($N = 1,703$)

	남아 ($n = 871$)	여아 ($n = 832$)	t
	$M(SD)$	$M(SD)$	
모의 양육스트레스	2.82(.64)	2.76(.64)	1.65
기질			
정서성	2.86(.61)	2.89(.62)	-0.78
활동성	3.90(.60)	3.79(.60)	4.10***
사회성	3.56(.54)	3.51(.26)	1.57
또래 상호작용			
놀이상호작용	3.37(.48)	3.53(.48)	-6.85***
놀이단절	1.98(.45)	1.93(.44)	2.46*
놀이방해	2.45(.39)	2.34(.40)	5.68***

* $p < .05$. *** $p < .001$.

2.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공차한계는 1.0에 가까웠으며, 분산팽창요인이 10미만으로 나타났고 독립 변인 간 상관계수는 .6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표 2 참조). 모든 분석에서 남아는 1, 여아는 2로 코딩되었다.

아동의 기질을 구성하는 정서성, 활동성 및 사회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우선, 성별과 기질 및 양육스트레스를 독립 변인으로 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표 2. 기질, 양육스트레스, 또래 상호작용 간의 상관관계 분석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양육 스트레스	놀이 상호작용	놀이 방해	놀이 단절
정서성	1						
활동성	-.03	1					
사회성	-.26**	.50**	1				
양육스트레스	.34**	-.06*	-.19**	1			
놀이상호작용	-.14**	.24**	.38**	-.24**	1		
놀이방해	.35**	-.02	-.09**	.26**	-.27**	1	
놀이단절	.27**	-.24**	-.43**	.30**	-.39**	.54**	1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아동의 기질과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독립 변인	<i>B</i>	β	R^2	<i>F</i>
놀이 상호작용	성별	.17***	.18	.21	91.38***
	정서성	-.04	-.01		
	활동성	.08***	.10		
	사회성	.27***	.31		
	양육스트레스	-.13***	-.17		
놀이 방해	성별	-1.11***	-.14	.17	67.18***
	정서성	.20***	.31		
	활동성	-.02	-.04		
	사회성	.02	.03		
	양육스트레스	.09***	.15		
놀이 단절	성별	-.07***	-.07	.25	111.95***
	정서성	.09***	.12		
	활동성	-.06**	-.08		
	사회성	-.27***	-.32		
	양육스트레스	.13***	.19		

** $p < .01$. *** $p < .001$.

91.38, $p < .001$), 놀이상호작용에 대해 총 2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아이고 기질 중 활동성과 사회성이 높을수록 놀이상호작용 수준이 높았으며, 반대로 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놀이상호작용 수준이 낮았다.

두 번째로 동일한 독립변인이 놀이방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회귀식 또한 유의하였으며($F = 67.18, p < .001$), 총 1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아이고, 정서성과 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놀이방해 수준은 높았다. 마지막으로 놀이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회귀식이 유의하였으며($F = 111.95, p < .001$), 이는 놀이단절에 대해 총 2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이고, 기질 중 활동성과 사회성 수준이 낮을수록 놀이단절 수준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성과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놀이단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기질과 또래 상호작용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매개효과를 살피는 과정에 있어서 기질은 정서성, 활동성 및 사회성의 하위요인으로, 또래 상호작용은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및 놀이방해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질 중 정서성과 또래 상호작용간의 관계에서 모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정서성이 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매개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로 a와 같이 정서성은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으며($B = .35, p < .001$), 이는 성별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도 정서성이 높을수록 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로 b에서도 양육스트레스 또한 아동의 놀이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으며($B = -.18, p < .001$)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놀이상호작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로 c와 같이, 정서성은 놀이상호작용 수준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영향력은 c'와 같이 매개변인인 양육스트레스를 투입했을 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1, p < .001 \rightarrow B = -.06, p < .01$). 종합했을 때, 이러한 결과는 정서성이 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보여준다.

정서성이 놀이방해에 미치는 영향 또한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b에서 성별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놀이방해에 영향을 미쳤으며($B = .16, p < .001$),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놀이방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성은 놀이방해 수준에 영향을 미쳤는데(경로 c 참조) 이러한 영향력은 c'와 같이 매개변인인 양육스트레스를 투입했을 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23, p < .001 \rightarrow B = .20, p < .001$). 이러한 결과는 정서성이 놀이방해에 미치는 영향이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정서성이 놀이단절에 미치는 영향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

표 4. 정서성이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경로 a		경로 b		경로 c	
						1단계	2단계
		<i>B</i>	<i>B</i>	<i>B</i>	<i>B</i>	<i>B</i>	<i>B</i>
놀이 상호작용	성별	-.06 [*]	-.15 ^{***}	.16 ^{***}	.15 ^{***}		
	정서성	.35 ^{***}		-.11 ^{***}	-.06 ^{**}		
	양육스트레스		-.18 ^{***}		-.16 ^{***}		
	<i>R</i> ²	.12	.08	.05	.09		
	<i>F</i>	111.26 ^{***}	76.90 ^{***}	41.90 ^{***}	54.14 ^{***}		
놀이방해	성별	-.06 [*]	-.10 ^{***}	-.11 ^{***}	-.11 ^{***}		
	정서성	.35 ^{***}		.23 ^{***}	.20 ^{***}		
	양육스트레스		.16 ^{***}		.09 ^{***}		
	<i>R</i> ²	.12	.08	.15	.17		
	<i>F</i>	111.26 ^{***}	75.97 ^{***}	144.61 ^{***}	111.30 ^{***}		
놀이단절	성별	-.06 [*]	-.04 [*]	-.06 ^{**}	-.05 [*]		
	정서성	.35 ^{***}		.20 ^{***}	.14 ^{***}		
	양육스트레스		.21 ^{***}		.16 ^{***}		
	<i>R</i> ²	.12	.09	.08	.12		
	<i>F</i>	111.26 ^{***}	84.51 ^{***}	69.99 ^{***}	78.98 ^{***}		

* $p < .05$. ** $p < .01$. *** $p < .001$.

로 나타났다. 경로 b에서 성별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놀이 단절에 영향을 미쳤으며($B = .21, p < .001$),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놀이단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c와 같이, 정서성은 놀이단절 수준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c'와 같이 매개변인인 양육스트레스를 투입했을 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20, p < .001 \rightarrow B = .14, p < .001$). 이러한 결과는 정서성이 놀이단절에 미치는 영향 또한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매개되

는 것을 보여준다.

정서성과 또래 상호작용에 대한 모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Sobel test 값은 종속 변수가 놀이상호작용일 때 $-8.27(p < .001)$, 놀이방해일 때 $8.85(p < .001)$, 놀이단절일 때 $9.71(p < .001)$ 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성과 또래 상호작용이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부분 매개됨을 보여준다(표 5 참조).

이어서, 활동성이 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매개되는

표 5. 정서성과 또래 상호작용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test

Input			Test Statistic
놀이 상호 작용	a	.35	-8.27***
	b	-.18	
	SEa	.02	
	SEb	.02	
놀이 방해	a	.35	8.85***
	b	.16	
	SEa	.02	
	SEb	.01	
놀이 단절	a	.35	9.71***
	b	.21	
	SEa	.02	
	SEb	.02	

*** $p < .001$.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경로 a와 같이 활동성은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으며($B = -.07, p < .01$), 이는 성별의 효과를 통제 한 상태에서도 활동성이 낮을수록 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로 b에서도 양육스트레스 또한 아동의 놀이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8, p < .001$). 경로 c에서 활동성은 놀이상호작용 수준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영향력은 c'와 같이 매개변인인 양육스트레스를 투입했을 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21, p < .001 \rightarrow B = .20, p < .001$). 활동성이 놀이방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활동성이 놀이단절에 미치는 영향 또한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경로 b에서 성별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놀이단절에 영향을 미쳤으며($B = .21, p < .001$), 활동성은 놀이단절에 영향을 미쳤는데(경로 c 참조) 이러한 영향력은 c'와 같이 매개변인인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투입했을 때 감소하였다($B = -.19, p < .001 \rightarrow B = -.18, p < .001$).

활동성과 또래 상호작용에 대한 모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의 Sobel test 값은 종속 변수가 놀이상호작용일 때 $2.53(p < .001)$, 놀이단절일 때 $-2.56(p < .001)$ 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성과 놀이상호작용 및 놀이단절 수준 간의 관계가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부분 매개됨을 보여준다(표 7 참조).

마지막으로, 기질의 하위 요인 중 사회성이 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a와 같이 사회성은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으며($B = -.23, p < .001$), 이는 성별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회성이 낮을수록 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로 b에서 양육스트레스 또한 아동의 놀이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으며($B = -.18, p < .001$), 경로 c에서 사회성이 놀이상호작용 수준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영향력은 c'와 같이 매개변인인 양육스트레스를 투입했을 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35, p < .001 \rightarrow B = .31, p < .001$).

사회성이 놀이방해에 미치는 영향 또한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경로 b에서 양육스트레스 또한 아동의 놀이방해에 영향을 미쳤으며($B =$

표 6. 활동성이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경로 a	경로 b	경로 c	
				1단계	2단계
		<i>B</i>	<i>B</i>	<i>B</i>	<i>B</i>
놀이 상호작용	성별	-.06	.15***	.19***	.17***
	활동성	-.07**		.21***	.20***
	양육스트레스		-.18***		-.17***
	R^2	.01	.08	.10	.14
	<i>F</i>	4.78**	76.90***	88.55***	94.80***
놀이방해	성별	-.06	-.10***	-.11***	-.10***
	활동성	-.07**		-.02	-.01
	양육스트레스		.16***		.15***
	R^2	.01	.08	.02	.08
	<i>F</i>	4.78**	75.97***	17.27***	50.90***
놀이단절	성별	-.06	-.04*	-.08***	-.07***
	활동성	-.07**		-.19***	-.18***
	양육스트레스		.21***		.20***
	R^2	.01	.09	.07	.15
	<i>F</i>	4.78**	84.51***	60.36***	95.90***

* $p < .05$. ** $p < .01$. *** $p < .001$.

표 7. 활동성과 또래 상호작용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test

Input		Test Statistic
놀이 상호작용	a	-.07
	b	-.18
	SEa	.03
	SEb	.02
		2.53***
놀이 방해	a	-.07
	b	.16
	SEa	.03
	SEb	.01
		-2.55***
놀이 단절	a	-.07
	b	.21
	SEa	.03
	SEb	.01
		-2.56***

*** $p < .001$.

.16, $p < .001$), 경로 c에서 사회성이 놀이방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영향력은 c'와 같이 매개변인인 양육스트레스를 투입했을 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7, p < .001 \rightarrow B = -.04, p < .05$).

또한, 사회성이 놀이단절에 미치는 영향이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b에서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놀이단절에 영향을 미쳤으며($B = .21, p < .001$), 경로 c에서 사회성이 놀이단절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력이 c'와 같이 매개변인인 양육스트레스를 투입했을 때 감소하였다($B = -.35, p < .001 \rightarrow B = -.32, p < .001$). 사회성과 또래 상호작용에 대한 모 양

표 8. 사회성이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경로 a	경로 b	경로 c	
				1단계	2단계
		B	B	B	B
놀이 상호작용	성별	-.06*	.15***	.17***	.17***
	사회성	-.23***		.35***	.32***
	양육스트레스		-.18***		-.13***
	R ²	.04	.08	.18	.21
	F	34.97***	76.90***	183.82***	146.13***
놀이방해	성별	-.06*	-.10***	-.11***	-.10***
	사회성	-.23***		-.07***	-.04*
	양육스트레스		.16***		.15***
	R ²	.04	.08	.03	.09
	F	34.97***	75.97***	24.95***	52.22***
놀이단절	성별	-.06*	-.04*	-.07***	-.06**
	사회성	-.23***		-.35***	-.32***
	양육스트레스		.21***		.15***
	R ²	.04	.09	.19	.23
	F	34.97***	84.51***	195.91***	171.57***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사회성과 또래 상호작용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test

Input		Test Statistic
놀이 상호 작용	a	-.23
	b	-.18
	SEa	.03
	SEb	.02
놀이 방해	a	-.30
	b	.16
	SEa	.03
	SEb	.01
놀이 단절	a	-.30
	b	.21
	SEa	.03
	SEb	.02

*** $p < .001$.

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Sobel test 값은 종속 변수가 놀이상호작용일 때 6.33($p < .001$), 놀이방해일 때 -6.58($p < .001$), 놀이단절일 때 -8.24($p < .001$)로 모두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성과 또래 상호작용이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부분 매개됨을 보여준다(표 9 참조).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이 또래 상호작용(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모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기질과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첫째, 아동의 기질과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또래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활동성과 사회성,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놀이상호작용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질과 또래 상호작용간의 관련이 있다는 서정은(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정적인 놀이보다 활동적인 놀이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아동의 기질이 친구를 돕고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긍정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놀이상호작용에 유능한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의 양육스트레스도 놀이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에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이수남(2010)의 연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즉, 자녀를 친근하게 대하는 것이 어렵고 자녀의 요구가 귀찮게 느껴지는 양육스트레스를 바탕으로 한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쳤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아동일수록 어머니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또래관계에서 나타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동의 정서성과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놀이방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정서성과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놀이방해 행동을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방해 행동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권연희(2013)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만성적으로 표현하는 아동일수록 또래를 공격하거나 놀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정적 정서성이 내현적, 외현적 문제 행동 및 사회 기술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Eisenberg & Fabes, 2006)와 유사하다. 한편, 어머니가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아동이 놀이방해 행동을 많이 보였다는 결과는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이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Williford et al., 2007)를 지지한다. 부모의 섬세한 반응이 아동의 높은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Garner, 2006)에서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일수록 아동과 긍정적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아동의 활동성, 사회성, 정서성 모두는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놀이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활동성과 사회성이 낮을수록 놀이단절이 높고 정서성이 높을수록 놀이단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성과 활동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 행동인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을 직접적으로 예측한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김희태 외, 2014). 또래와의 관계에서 활동성이 높고 낮은 이와 쉽게 친해지는 사회성이 높은 아동은 다른 친구들에게 거부당하는 행동과 같은 놀이단절을 잘 보이지

않지만, 잘 울거나 감정적인 성향을 자주 표현하는 높은 정서성의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놀이를 함께 하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하는 등의 놀이단절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모의 양육스트레스도 놀이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놀이단절과 부적 상관 관계를 보인다는 서석원과 이대균(2014)의 연구와 비슷하며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어머니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기질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기질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훈육할 수 있는 방법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육아를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2. 아동의 기질과 또래 상호작용간의 관계에서 모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첫째,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과 또래 상호작용 중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놀이방해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상호작용의 경우, 정서성이 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아동의 낮은 놀이상호작용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아동의 어머니일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아동이 친사회적이고 순조로운 놀이 행동을 덜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놀이단절과 놀이방해의 경

우, 정서성이 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아동의 높은 놀이단절과 놀이방해의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성적으로 화를 내는 등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아동의 어머니는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아동이 또래와의 놀이를 단절 시키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기는 또래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생애 초기부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어머니와 어떠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였느냐에 따라 또래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박정희, 장영애, 2004). 아동의 정서성이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김혜라, 김진경, 2012)를 바탕으로, 아동의 기질로 인한 높은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와 자녀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이끌어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모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보여준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위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아동의 기질을 이해하도록 돕고 정서성이 높은 아동을 훈육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부모교육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서성에는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긍정적 정서성도 있으므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을 줄이면서 긍정적 정서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양육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과 또래 상호작용 중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단절과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상호작용의 경우, 낮은 활동성이 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아동의 놀이상호작용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주 움직이지 않고 활동적이지 않은 아동의 기질이 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긍정적인 놀이상호작용이 덜 보인다는 것이다. 놀이단절의 경우, 낮은 활동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아동의 놀이단절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동이 굵뜨고 느린 아동의 어머니는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또래와의 놀이 상황을 단절시키거나 위축적인 놀이 행동을 많이 보이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활동성과 모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이윤정(201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며, 아동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더욱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고 어머니의 보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미정, 2010; 김혜순, 2007)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활동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한다는 연구(정순자, 김영희, 2007)도 보고되고 있어 아동의 활동성과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더욱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에는 어머니가 아동의 활동성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도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기질 중 사회성과 또래 상호작용 중 놀이상호작용, 놀

이단절, 놀이방해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상호작용의 경우, 낮은 사회성이 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아동의 낮은 놀이상호작용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줍음을 잘 타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동의 기질이 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또래들과 부정적인 놀이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게 된다. 놀이단절과 놀이방해의 경우, 낮은 사회성이 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아동의 높은 놀이단절과 놀이방해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사람을 사귀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향의 아동의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더 경험하게 되고 이는 또래들에게 공격성을 보이거나 위축되는 행동인 놀이방해나 놀이단절을 더 보이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때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이정숙, 두정일, 2008). 사회성이 낮은 아동은 낯선 환경과 타인에 잘 적응하지 못해 어머니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자녀에게 할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양육스트레스를 더 경험한다. 따라서 사회성이 낮은 아동은 타인보다 어머니를 의지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머니와 오랜 시간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쌓여 또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부모교육과 상담 등과 같은 여러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

며 부모 교육 뿐만 아니라, 아동이 타인과 잘 어울리고 사교적인 성향을 길러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변인은 어머니의 설문지 보고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기질 및 또래 상호작용은 어머니 뿐만 아니라 교사와 보내는 시간도 많은 유아의 특성상 추후에 보육교사의 보고 자료도 함께 연구에 활용한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한된 변인의 한계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다면 보다 통합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질과 또래 상호작용간의 관계에서 모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 발달에 미치는 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동의 긍정적 또래관계 증진을 위해서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나아가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공하였다.

참고문헌

고광만, 김소아 (2013). 사회적 지원, 일-가족양립정책 및 부부특성이 후속출산의도 및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348-348.

권연희 (2013). 유아의 행복에 대한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의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4), 525-537.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학가정학회지, 35(5), 141-150.

김미정 (2010). 걸음마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선영 (200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현미 (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라, 김진경 (2012). 아동의 발달 특성과 정서성 및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53-67.

김혜순 (2007).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보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51, 87-109.

김희태, 김정립, 이임순, 남연정 (2014). 유아의 긍정적·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관련된 변인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 8(6), 164-177.

류경숙 (2013).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어머니의 부모-자녀 관계 증진 놀이치료(CPRT)경험유형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4(2), 75-104.

- 민동옥, 박혜원 (2012). 영아 정서성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어머니 특성의 상호작용효과, *대한가정학회지*, 50(3), 51-58.
- 박석규, 이은희 (2011).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능력과 기질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6(1), 257-278.
- 박정희, 장영애 (2004).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8(2), 327-353.
- 서석원, 이대균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157-178.
- 서정은 (2006).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에 따른 또래간 상호작용, *한국유아교육연구*, 8, 98-123.
- 손영지, 박성연 (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 성격의 중재효과. *인간발달연구*, 18(2), 125-144.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유림 (2011). 또래 괴롭힘 공격적 피해, 수동적 피해 및 가해 유아의 사회적 행동, 심리사회적 적응과 언어능력. *대한가정학회지*, 49(6), 1-12.
- 엄세진 (2014). 영아의 기질 및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87, 29-49.
- 이수남 (2010). 경제적 해체 가족과 일반가족의 가족 간 상호작용유형에 따른 자녀양육스트레스 및 아동의 또래놀이상호작용. *한국교육문제연구*, 28(2), 187-214.
- 이윤정 (2014). 아동 기질과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취업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5, 117-136.
- 이정숙, 두정일 (2008). 부모-자녀 상호작용 치료에 대한 고찰.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2), 1-16.
- 이정숙, 문보경 (2010). 유아의 기질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4), 55-74.
- 이주옥 (2009). 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육아지원연구*, 4(1), 115-132.
- 이현정 (2014).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군집별 유아, 교사 및 학급 변인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정, 이예진, 신유림 (2013).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또래놀이 상호작용 관계에서 언어능력의 중재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1(4), 395-401.
- 이희정 (2014). 저소득층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중단적 변화와 예측변인-양육행동과 또래관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6, 115-141.
- 장영애 (2005). 농촌지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취학전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2), 75-91.
- 정순자, 김영희 (2007).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학연구*, 2(1), 145-163.

- 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2009). 애착과 발달. 서울: 학지사.
- 정진숙, 최명선 (2013). 유아의 기질군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아시아 아동복지연구, 11(3), 67-71.
- 조용신, 정영숙 (2000).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9(3), 271-281.
- 최미숙, 김미숙 (2005).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 및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간의 관계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2), 153-172.
- 최혜영, 신혜영 (2008).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PIPPS)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3), 303-31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elsky, J., & Pluess, M. (2009). Beyond diathesis stress: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s. *Psychological Bulletin*, 135(6), 885.
- Bocknek, E. L., Brophy-Herb, H. E., Fitzgerald, H., Burns-Jager, K., & Carolan, M. T. (2012). Maternal psychological absence and toddlers'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Interpret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boundary ambiguity theory. *Family Process*, 51(4), 527-541.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 NJ: Erlbaum.
- Cappa, K. A., Begle, A. M., Conger, J. C., Dumas, J. E., & Conger, A. J. (2011). Bidirectional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child coping competence: Findings from the pace stud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0(3), 334-342.
- Eisenberg, N., & Fabes, R. A. (2006). Emotion regulation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competence. In L. Balter & C. S. TamisLeMonda (Eds.), *Child psychology: A handbook of contemporary issues* (2nd ed., pp. 357-381).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 Eisenberg, N., Guthrie, I. K., Fabes, R. A., Shepard, S., Losoya, S., Murphy, B., & Reiser, M. (2000). Predic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from attentional and behavioral regulation and negative emotionality. *Child Development*, 71(5), 1367-1382.
- Fantuzzo, J., Sutton-Smith, B., Coolahan, K., Manz, P., Canning, S., & Dehanam, D. (1995). Assessment of preschool play interaction behavior in young low-income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 105-120.
- Garner, P. W. (2006). Prediction of pro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from maternal behavior in African American preschooler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2(2), 179.
- Hartup, W. W. (2005). Peer interaction: What causes wha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3), 387-394.

- Hencrisson, L., & Rydell, A. (2006). Children with behaviour problems: The influence of social competence and social relations on problem stability, school achievement and peer acceptance across the first six years of school.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5, 347-366.
- Sanson, A., Hemphill, S. A., & Smart, D. (2004). Connec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development: A review. *Social Development*, 13(1), 142-170.
- Shetgiri, R., Lin, H., & Flores, G. (2013). Trends i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child bullying perpetration in the United State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4(1), 89-104.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Wiley.
- Rothbart, M. K., Ellis, L. K., & Posner, M. I. (2004). Temperament and self-regulation. In R. F. Baumeister, K. D. Vohs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pp. 284-299). New York: Guilford Press.
- Walden, T., Lemerise, E., & Smith, M. C. (1999). Friendship and popularity in preschool classroom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0(3), 351-371.
- Williford, A. P., Calkins, S. D., & Keane, S. P. (2007). Predicting changes in parenting stress across early childhood: Child and maternal fact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251-263.
- 1 차원고접수 : 2014. 10. 14.
수정원고접수 : 2014. 11. 17.
최종게재결정 : 2014. 12. 04.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Peer Interactions: The Mediation Role of Parenting Stress of Mothers

Shin, Eun Kyung

Jung, A Hyun

Kim, So A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peer relationships, as mediated by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comprised of 1,703 pairs of 3 years 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The subjects were taken from the 2011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a large population-based stud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t*-tests, Pearson correlation analyse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nd the Sobel tes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activity, sociability and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ere found to be related to play interaction. Moreover, children's emotionality and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ere found to be related to play disruption. Children's activity, sociability, emotionality and maternal stress were related to play severance. Second, children's emotionality had an influence upon peer interaction, disruption and severance, which in turn were partially mediated by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Children's activity was shown to influence peer interaction and severance, which was partially mediated by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Finally, children's sociability was shown to influence peer interaction, peer disruption and severance, which, once again, was partially mediated by parenting stress of mothers.

Keywords: temperament, peer interaction, parenting stress of mothers